

대등생극론 발표 요지

조동일

앞에는

(생극론은 1996년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이래로 여러 논저에서 고찰했다. 대등론은 2020년 <<대등한 화합>>, 2024년 <<대등의 길>>에서 선행작업을 했다. 양쪽을 아우르고 추가 작업을 보태, 2026년 <<대등생극론>>을 내놓았다.)

왜 나서는가

지금 근대가 종말에 이르러, 역사의 선후 역전이 거대하게 진행된다. 어려운 처지에서 여러 선진국을 따르던 우리 한국이, 선진으로 나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세계사의 다음 시대를 바람직하게 창조해야 한다고, 국내외 여기저기서 요청하고 있다.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공연예술로 즐거움을 주고, 발전된 기술로 생활을 편안하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무기를 잘 만들어 침략을 저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답과 거리가 더 멀다. 그릇된 세계사를 바로잡는 철학을 내놓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업이다. 차등론의 횡포를 대등론으로 시정하고, 상극을 극대화하는 싸움을 생극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 대등생극론이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분투한다.

K-팝이나 K-드라마보다 훨씬 더 나아간 K-학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요청을 절실하게 받아들여, 기대 이상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학문 창조의 모범을 보여 나라를 빛내는 데 그치지 않고, 인류 문명의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다음 시대를 바람직하게 창조할 수 있는 기본 설계를 제시하려고 한다.

돌부리나 차면서 골짜기를 헤맬 건가? 산 위에 올라서야 시야가 열린다. 강산이 뻗어난 것은 하늘에서 보인다.

나라가 망할 때 망한 철학이, 나라는 살아났으나 아직 죽어 있다. 일본철학에게 잡아먹힌 것만은 아니다. 수입품으로 일관하는 일본철학을 본떠서,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우려할 사태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이 되었어도, 철학 추진력이 없어 추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전례를 따르려고 한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려면, 시야를 확대해야 한다. 잘 나간다고 뽐내던 서양철학의 파탄을 보이며 몰락하고 있다. 그 뒤를 바짝 따르는 일본이 함께 몰락하려고 하며, 일본철학이 동반자살을 하겠다고 한다. 동반자살을 흉내 내, 한국철학은 이중의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면 더 웃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지나치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이 후진이 되고, 후진이 선진이 되는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선진으로 나서는 것이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증거이다.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고, 올바른 길을 찾아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 역사 역전을 이룩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철학 수입에서 창조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학문의 대혁신을 이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장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이치를 다시 밝혀, 세계사 진행의 그릇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대한 국면에 들어선 것을 바로 알고, 누구나 각별한 노력을 해서 힘을 보태야 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갖가지 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모든 작업이나 그 성과가 서양철학의 편향성이나 과오를 시정하는 대안이다. 사분오열되어 흩어진 학문을 모으고, 연구와 창작, 이론과 실천이 하나이게 하는 문명의 전환도 함께 시도된다. 모두 근대를 넘어서 다음 사대를 바람직하게 창조하는 지침이고 설계이다.

哲人學을 되살려

‘철학’은 서양의 ‘필로소피’(philosophy)를 가져와 일본에서 번역한 말이라고 한다. 여기서 착오가 시작되었다. ‘철학’은 ‘서양철학’을 줄여 일컫는 약칭이라고 여긴다. 서양이 아닌 다른 곳들은 철학을 이룩할 능력이 없었다고 격하한다. 일본에서는 철학과가 서양철학과이다. 이런 편향성을 시정해야, 철학이 보편적인 학문이 된다.

한국은 일본만큼 극단적이지 않으나, 문제가 있다. 한국철학이나 중국철학도 철학과의 소관이라고 인정하지만,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양철학이 패권을 장악하고 갑질을 일삼는 학과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신세이다. 서양철학은 보편적이고, 한국철학이나 중국철학은 특수하다는 열등의식을 버리지 않는다. 이 모두 일본의 영향인 것을 알고, 청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한국철학이나 중국철학 전공자들은 서양철학의 위세에 밀려 주눅이 잔뜩 들어 있다. 철학의 광장에 나가 토론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 자료나 만지고 있다. 근시가 너무 심해져서, ‘哲學’의 ‘哲’이 오랜 내력을 가진 ‘哲人’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모른다. 시비를 가리기에 앞서 지식의 균형을 최소한이라도 갖추도록 하는 임무마저 저버리고 있다. ‘필로소피’의 유래를 알아야 철학 이해가 가능하다고 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

‘哲人’은 <詩經>에서 유래한 말이다. (<大雅 抑 十二章>) ‘哲人’은 ‘愚人’과 다르다고 했다. “其維哲人 告之話言 順德之行 其維愚人 覆謂我僞”(哲人は 이야기나 말을 들려주면 순순히 훌륭한 행실로 실행하지만,愚人은 도리어 내가 주제넘다고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아야 한다.

‘哲人’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愚人’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슬기롭다는 것은 말을 잘 알아듣고, 유익한 말을 들으면 실행한다는 뜻이다. 어리석다는 것은 유익한 말을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주제넘다고 나무란다는 뜻이다.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하고, 유익한 것을 판단하고, 판단하면 실행하는 능력이 슬기로움이다.

대등한 관계에서 남들과 소통을 하면서, 유익한 말을 들으면 실행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哲人’이다. ‘哲人’이 하는 학문이 ‘哲人學’이고, 줄여 말하면 ‘哲學’이다. ‘철학’이 이런 학문이라는 생각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런 소중한 생각을 아주 망각하고, ‘철학’이 ‘필로소피’의 현지 대리점일 따름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제 잘못을 바로잡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결단이 철학을 수입학이 아닌 창조학이게 하는 대전환의 시초가 된다. 서양을 따르는 일본을 따르지 않고 선후 역전으로 앞에 나서서, 서양철학의 잘못을 시정하고 이치의 근본을 다시 밝히는 길을 연다. 근대를 극복하고 다음 시대를 이룩하는 첫 작업을 한다.

남의 말 추종을 공부라고 여기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유식하다 할 것인가? 자기 말 명의를 되어 이런 질환 치료해야.

달관언어

옛사람들은 말했다. “哲人達觀”(철인은 達觀한다.), “達觀 則旁燭無疆”(달관이란 널리 비침이 끝이 없음이다.)(申欽, <觀銘>) “人之知覺思慮 每局於所遇之時 所處之地 所聞之事 所見之物 故莫之能達觀焉 惟能脫四局 然後 可以達觀理氣之無窮也哉”(사람의 지각이나 사려가, 만나는 때에, 머무는 장소에, 듣는 일에, 보는 물건에 매번 국한되면 능히 달관한다고 할 수 없다. 오직 이 네 가지 국한됨에서 벗어난 다음에야 理氣가 무궁함을 달관할 수 있다.)(張顯光, <究說>)

널리 비친다는 말은 생각이 도달해 대상을 파악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파악한 내용에 관해서는 무어라고 하지 않았다. 달관이란 모든 것을 두루 파악하고 어느 것에 머무르지 않는 정신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달관은 구체적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아 포괄적이다.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고, 모두 함께 인정하는 공유의 견해이다. 선학이 말한 것을 후학이 이어받아, 고금학문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는 자산이고 가능성이다. 이을 것을 잊고, 보텔 것을 보태고,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고칠 수도 있다.

그래도 세부를 다 갖추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온통 자기 것으로 만들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망상이다. 총체성이나 포괄성과 함께, 미완의 가능성도 달관의 필수 요건이다.

수식에 발이 묶여 과학은 반신불수. 달관하는 철학은 시와 함께 올라서서, 아직은 모르는 곳들까지 차별 않고 품는다.

달관은 <老子>에서 “天網恢恢 疎而不失”(73장)이라고 한 데 유래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대말 “地筌狹狹 密而多失”까지 들고, 양쪽이 학문하는 자세나 방법에 관해 어떻게 말하

는지 비교해보자. “하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글어도 잃는 것이 없다”는 달관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땅 통발은 좁고 좁아, 뽁뽁해도 잃는 것이 많다”는 천착의 실상을 보여준다.

옛적에는 달관을 소중하게 여겼는데, 오늘날 학문한다는 사람들은 천착에 몰두한다. 천착을 더욱 정밀하게 하려고, 안팎으로 애쓴다. 안으로는 철학의 소중한 유산은 버리고 고증학의 말폐를 계속 보여준다. 밖으로는 서양의 수리언어를 높이 평가해 추종하려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겹쳐, 학문을 왜소하고 빈약하게 한다.

수리언어는 일상언어와 결별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다. 애써 탐구해 찾아낸 논리를 엄정하게 전개한다. 그 방식을 수학에서 가져와, 일상언어와 거리가 아주 멀다. 극소수의 전문가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서양철학은 이런 수리언어를 추종하다가, 논의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었다. 궁벽해지고 길을 잃었다.

철학은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해 사고를 엄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수리언어를 추종하다가 위에서 든 결함이 생긴 것만이 아니다. 과학을 본떠서 정확하고 엄밀한 사고를 하려고 하니 외연이 줄어들어,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학문이어야 하는 본분을 저버린다. 과학을 추종하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철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

차등론 타파

인류는 다른 생물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이원론을 근거로 삼고 있는 차등론이다. 그 잘못을 지적하고 일원론에 입각한 대등론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는 과학을 포함한 철학이라야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생물은 인류가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창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하는 말이어서, 철학으로 시비하지 못한다. 머리가 위에 있어 인류는 正生이고, 옆에 있어 금수는 橫生이고, 아래에 있어 초목은 逆生이라는 주장은 상당한 수준의 철학이다. 正·橫·逆이 우리의 등급이라는 차등론까지 갖추어 온전한 체계를 갖춘 것 같다. 이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제기된 것을 듣다. 번역에 의존하지 말고, 원문을 알아야 한다.

홍대용은 말했다.

五倫五事 人之禮義也 羣行啁哺 禽獸之禮義也 叢苞條暢 草木之禮義也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以物視人 物貴而人賤 自天而視之 人與物均也”(〈盤山問答〉)

‘오륜’이나 ‘오사’는 인류의 예의이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불러 먹이는 것은 금수의 예의이다. 떼기로 나서 가지를 뺏는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인’에서 ‘물’을 보면 ‘인’이 귀하고 ‘물’은 천하다. ‘물’에서 ‘인’을 보면 ‘물’이 귀하고 ‘인’은 천하다. 하늘에서 이것들을 보면, ‘인’과 ‘물’이 균등하다.

최한기는 말했다.

禽獸魚龍 皆有運化之教 以遂其生 既 與人 形質異 所習異 言語文字 不與人相通 驟觀之 雖若無教 潛究 其知機動靜 不可謂自相無教 人詳見 其一二捕捉之禽獸魚龍 不見山海空曠之地 羣居優游之容態 自相教誨之有無詳畧 何以質言 易地思之 禽獸魚龍 見一二人失所誤死者 不見衆人起處動作 何能知人之有教也 只以人教言之 人類之中 有不率教者 禽獸之中 有能率人馴教者 烏可謂 惟人有教 而禽獸無禽獸之教 魚龍無魚龍之教(<禽獸有教>)

금수어룡도 모두 운화의 가르침이 있어 살아간다. 짐승은 사람과 형질이 다르고, 익힌 것이 다르며, 언어와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얼핏 그것을 살피면 가르침이 없는 것 같으나, 깊이 탐구해 그 낱새와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알면 스스로 서로 가르침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람이 자세하게 보는 것이 어찌다가 한둘 사로잡힌 금수어룡이기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산과 바다 넓게 트인 땅에서 무리를 지어 여윌 있게 노니는 모습이다. 서로 가르치고 타이름이 있고 없고, 상세하고 소략하다고 무엇으로 딱 잘라 말하겠는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 어룡이나 금수가 한둘 제 자리를 잃고 잘못 죽은 사람만 살피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고 살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은 보지 못하면, 사람에게 가르침이 있는 것을 능히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이로써 사람 가르침을 말하겠는가? 사람의 무리 가운데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고, 금수 가운데에도 능히 사람을 따르고, 가르침에 순응하는 자가 있다. 어찌 사람만 가르침이 있고, 금수에게 금수의 가르침이 없으며, 어룡에게 어룡의 가르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홍대용이 한 말은 총론이다. 인류·금수·초목은 각기 그 나름대로의 예의가 있다. 사는 방식에 필요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다. 각기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人物均’의 관점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대등론이다.

최한기는 같은 생각을 더욱 치밀한 논의를 갖추어 제시했다. 사람은 ‘教’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가르침에 더욱 힘써 우월함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막강한 힘을 행사해온 정통 유학의 기본 이념이었다. 이에 대해 철저한 반론을 제기하고 사고의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가르침이 소중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람은 다른 생명체를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유학자는 예사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중의 불평등을 합리화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기는 쉬워도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웠다. 불교에서 짐승이 사람과 함께 윤회를 하는 대등한 존재이므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한 주장은 공감할 수 있어도 설득력이 부족했다. 윤회를 사실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형편을 적극 타개했다.

사람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재론하려고 사는 방식을 문제로 삼았다. 모든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의 사는 방식이 있고, 사는 방식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람이 지닌 능력으로는 여우나 까마귀의 삶을 살지 못하니 여우나 까마귀를 낮추어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사는 능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가르침으로 전수된다. 가르침이 잘 전수되지 않기도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 대등론을 구체화하는 각론까지 갖추

었다.

풍요롭기 그지없는 옥답 유산 잇고서, 쪽박 들고 남의 동네 동냥이나 다닐 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인 노릇 다시 해야.

역사철학의 기본

대등생극론의 역사철학은 몇 가지 명제로 간추릴 수 있다. 이 정도의 원론만 알면 된다고 여기지 말고, 갖가지 각론 작업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경험에서 더 배워야 한다.

지나치면 반대가 되는 것이 대원칙이다. 너무 크고 강성하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 자멸을 재촉한다. 정도 이상 잘하려고 하면, 뜻한 것과는 반대로 손상을 끼치고 만다. 적으로 지목한 대상을 박멸하려고 하면, 역경에서 생존력을 키워 번성한다.

역사는 변증법의 투쟁이 아닌, 대등생극론의 선후 역전으로 향상된다. 선진은 차등론에 근거를 둔 우월감에 사로잡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멸을 초래하게 된다. 후진은 열등감을 반발의 근거로 삼아 활력을 얻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창조주권의 새로운 발현으로 세상이 좋아지고, 인류는 더 큰 행복을 얻는다.

계급투쟁과는 다른, 차등론에 대한 대등론의 반격으로 역사가 진전된다. 지배계급의 차등론에 맞서서 피지배계급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평등론은 혁명하고 집권하면 새로운 차등론이 된다. 이런 일탈을 바로잡으려면, 혁명이나 집권이 아닌 소통이나 설득의 방법으로 만민 공유 창조주권의 대등론을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치와 거리를 두는 학문이나 예술이, 아무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그 선두에 서야 한다.

시작이 훌륭하면 결과도 훌륭한 것은 아니다. 시작이 훌륭해도 결과는 잘못될 수 있고, 시작이 잘못되었어도 결과는 훌륭할 수 있다. 시작이 훌륭하면, 반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시대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며, 후진이 선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작이 잘못되면, 이와 반대이다. 잘못을 뉘우쳐 시작이 훌륭한 쪽을 몰래 자기 방식대로 따르고, 시대변화를 알아차려 먼저 달라지려고 노력하며, 후진이 선진이 되는 역전을 실제로 이룩한다. 시작이 훌륭해도 결과는 잘못된 쪽은 비난하고 말 것이 아니다. 반면교사 노릇을 한 공적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원시를 고대가, 고대를 중세가, 중세를 근대가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룩한 세계사의 대전환이 재현된다. 근대를 부정하고 다음 시대를 이룩하는, 새로운 대전환이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종교가 사라지는 징후가 기독교에서 특히 뚜렷하고, 세계 도처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것은 각기 그것대로 기이하게 보이지만, 연결해보면 대전환의 내막이 드러난다.

근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식민지의 고통을 겪은 후진이 이제 선후 역전을 이룩하고, 선진으로 나선다. 유럽중심주의 차등론을 철폐하고 인류 본연의 대등론을 되살리는 작업을 주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기본설계 작성의 선결과제를 대등생극론이 담당하면서, 학문과 예술의 동지들이 먼저 깨어나라고 외치고 다닌다.

성과 총괄

모든 것은 서로 관련된다. 그 양상을 차등론·평등론·대등론에서 각기 다르게 말한다. 이 셋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가지고, 타당하고 부당한 것을 시비한다. 이런 논의를 전개한 성과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더 나아간다. 커다란 희망을 말한다.

차등론은 우파의 이념 노릇을 하고 있다. 발전하려면 우열을 가르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매한 형이상학으로 눈을 가려 험한 세상을 아름답게 여기도록 한다. 평등론은 좌파에서 내세우는 주의이다. 평등론의 이상을 실제로 이룩하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상극의 투쟁이 폭력이 되어 차등론을 악화한다.

대등론은 중도 노선이다. 상생이 상극이고 상극이 상생임을 분명하게 하는 생극론을 실행한다. 좌우 편향의 일탈이나 과오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분투한다. 평화를 이룩하고 화합하면서, 서로 도와 함께 잘살자고 한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세계사의 미래는 밝다고 한다.

대등생극론이 좌우의 대립과 투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통일의 방안이고, 지표여야 한다. 지금 우파의 이념도 좌파의 노선도 설득력을 잃고 파탄을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논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양쪽 다 대등생극론을 배격할 이유도 능력도 없어, 수락하지 않을 수 없다.

절망이 극도에 이르면 희망이 생긴다. 남북이 대등한 위치에서 생극하는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가지다가, 국가의 장벽을 무너뜨릴 정도로 확대되면 통일이 이루어진다. 정치와 거리가 먼 영역에서부터 피차 도움이 되는 선의의 경쟁을 힘써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문이나 예술이 주도해 대등생극론의 문명을 총체적으로 창조하는 작업을 통일 과정에서 진행하고, 통일하면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절망보다 파탄이 더 큰 문제이다. 지금 온 인류는 신뢰할 만한 지표가 없어 헤매고 있는 것이 파탄이 심각한 사태이다. 신앙이니 이념이니 하는 것들에 불신이 나날이 커지면서, 모든 이상주의를 허망하게 만든다. 정치는 이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해 극심한 충돌을 빚어낸다. 일상적 무관심과 저질의 극한 대결, 전혀 다른 이 둘이 공존하는 특이한 상황이 조성되어, 세계사가 동력을 잃고 뒤로 처지게 한다.

이에 대해, 좌우 다툼이나 남북 분단을 염려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방대한 문제의식과 거시적인 조망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근대가 파탄을 보이며 종말을 고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말 것은 아니다. 세상이 더욱 그릇되고, 인류는 자멸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나치면 역전되는 원리에 따라, 위기를 해결하고 희망을 찾게 하는 다음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 당연하다. 당위론에 해결을 맡길 수 없고, 실질적인 의의가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디서 희망을 찾고, 장래를 낙관할 것인가? 이 절박한 물음에 직접 대답하고자 한다. 대등생극론이 해답이고 해결책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말하며, 긴 논의를 마무리한다.

극도에 이른 절망이 대단한 희망이 되어, 마멸되고 왜곡된 본연의 창조주권을 살려내 대등생극론을 실현하도록 한다. 불운이 행운이고, 위기가 비약을 가능하게 한다. 무시당한 가능성이 샘솟아 올라, 선진과 후진, 중심과 변방의 대역전이 일어난다. 세계사의 중심축이 이동

한다.

대등은 만인·만생·만인의 상호관계이고, 생극은 그 생성작용이다. 대등을 부정하는 차등론이 횡포를 자행하고, 차등론의 대안이 평등론이라는 억지가 불행을 키우는 잘못을 대등론으로 바로잡는다. 상생과 상극이 따로 노는 착오를 생극론으로 시정한다. 인류 역사의 파행을 청산하고 정상을 회복하는 철학을 대등생극론으로 이룩한다.

갈가리 찢어진 문명을 통합해, 총체적인 통찰력을 되찾는다. 과학과 철학, 학문과 예술, 이론과 실천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한다. 어디서든지 상극에서 상생으로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창조할 수 있게 한다. 근대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중세 보편주의의 부정을 부정하고, 문명권 보편주의를 인류 보편주의로 확대해 재정립한다.

종교의 사제자와 평신도, 정당의 간부와 하급당원, 학문의 석학과 초학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차등론을 거부한다. 누구나 지닌 창조주권을 대등하게 실현해 허언을 일소하고 진실을 입증한다. 민인대등을 밑으로부터 스스로 확인하고 실행해 모든 분란과 불만을 해소한다. 사람이 으뜸이라고 뽑내는 인간중심주의의 잘못도 심각하게 여기고 철저히 시정한다.

만물·만생·만물대등생극이 각각이지 않고 하나인, 더욱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만물대등생극에서 만생대등생극이, 만생대등생극에서 만인대등생극이 이루어진 원리와 양상을 힘써 논구한다. 이 작업에서 모든 상극이 상생일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나무라는 상극도 상생에게 포용한다. 학문에서 생기는 적대관계까지 합작이게 한다.

인류는 지금 환경 악화를 촉진해, 멸종의 위기를 스스로 조성하고 있다. 만생·만물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이 파멸을 가져온다. 인류의 멸종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더라도, 만생·만물로의 피해 확대는 전연 부당하므로 파국을 막아야 한다. 대등생극론이 이 과업을 맡아 분투한다.

뒤에는

(총론은 짧게 마무리해도, 각론은 무한히 늘어야 한다. 나는 <<한불 문명 비교론>>, <<한국과 일본의 대등생극>>, <<한국과 중국의 대등생극>>을 써내며, 여러 동학의 분발을 기대한다. 토론은 더욱 활발해야 한다. 2026년 10월 9일에 서평발표회가 있는 것을 알린다.)

2026.04.27.

이한구

1. 대등생극론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존재론적 명제인가? 아니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명제인가?
2. “生則克”의 명제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生과 克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언제나 함께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生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克의 상태로 변화되고 반대로 克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生의 상태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화 위복과 같이, 대등생극론에서는 “生則克”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신중섭

3. “세계사가 전개되어온 판도를 멀리까지 바라보자. 동아시아의 한문·유불문명, 남·동남아시아의 산스크리트·힌두교문명,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아랍어·이슬람 문명, 유럽의 라틴어·기독교문명이 펼쳐져 있는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네 문명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차등에서 대등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558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자유상업문명의 확산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업문명은 대등생극론의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테헤란로가 한 사례입니다.

4. ‘창조주권’이나 ‘대등생극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는 무엇인가요?

강학순

5. 대등생극론의 서양철학 비판은 정당한가?

문명의 대전환이 요청되는 시대에 인류 보편적인 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서양문명의 근간인 서양철학의 편향성이나 과오를 시정하려는 시도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대등생극론에서 바라보는 서양철학에 대한 해석의 시각 역시 편향적이고, 성급하고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엿보인다. 예를 들면, “잘 나간다고 뿔내던 서양이 철학의 파탄을 보이며 몰락하고 있다.”(발표문, 1쪽) 서양을 뒤따르는 “일본철학이 동반자살을 하겠다고 한다.”(1쪽) “서양철학은 이런 수리언어를 추종하다가, 논의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었다. 궁벽해지고 길을 잃었다.”(3쪽)

이런 주장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 서양철학을 단일한 성향으로 규정하면서 내부의 비판과 반례를 무시한다는 점이다. 서양철학의 흐름 속에서도 대등생극론이 지향하는 일원론, 탈인간중심주의의, 탈유럽중심주의 철학들도 존재한다. 서양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내부 비판과 극복을 통한 새로운 사유의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현대 서양철학도 비서양철학을 참조하면서 자기 검열과 비판을 해나가고 있고, 나아가 “서양철학의 종말”을 이야기 하면서도 새로운 철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양 근·현대철학 안에서도 형이상학적인 철학에 반론을 제기한다. 예컨대, 흄은 인과성 자체를 회의했고, 니체는 진리와 이성의 해체를 시도했고, 현상학과 해석학에서는 관계와 맥락을 강조했고, 일상 언어학과의 대표자인 비트겐슈타인은 수리 언어보다는 일상 언어를 철학적으로 주제화했다. 이런 점에서 대등생극론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서양철학에 대한 성급하고 과도한 일반화와 사례 선택의 편향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6. 대등생극론에서는 서양철학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보다 상호문화적인 소통과 설득의 방법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대등생극론에서는 충돌과 대립을 제거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낳는 원리로 본다. 그것은 타자성을 소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것과 생극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서양철학을 단지 시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문화적인 대화와 설득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요구된다. 대등생극론이 내적인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이해서는 동양/한국철학과 서양철학의 차등론과 상극론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양자 간의 상호문화적 소통과 설득의 방법으로 만인공유 창조 주권의 대등생극론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타자성에 대한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용덕

7. 서구인들은 갈등의 규모를 줄이고 쉽게 타협(合)에 도달하기 위해 이성적인 토론 방법(예: 소크라테스)에서 제도적 분권화, 다원화를 바탕으로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적용해 왔다. 반면, 동아시아 문명권에서는 애초부터 이분법이 아니라, 통합적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온 것으로 이해한다. 통합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동아시아에서 과연 갈등이 (서구에 비해) 적었는가? 특히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극심한 수준의 사회갈등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원효, 율곡 등은 갈등의 궁극적인 해소 요건으로 개인들 각자의 마음 상태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교에서의 '成佛'이나 유교의 '得道'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보면, 이는 결코 구현이 쉽지 않은 요건 아닌가?

허우성

9. 法縮小格下 대등사회가 최상이고, "최악은 법조인이 얻은 이득에 비례해 일반인이 받는 고통이 증대되는 법 확대 격상 차등사회이다." (p. 691)라고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 현대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두 개의 '진실' 또는 세력이 극단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은 현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고 어떤 그룹은 그것을 부인하며 공소취소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두 세력 앞에서, 선생님께서 만인대등이나 상생을 실행하실 경우, 곧 '서로 필요한 관계'라는 공동선을 위한 투쟁하실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달관의 입장에서 이런 이슈는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까?

10. 일본에 대한 여러 기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일관계의 대등생극론'을 내려고 하십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화합을 추구하실 때 대화의 상대로 일본의 사상가(철학자)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안도 쇼에키라는 농민 사상가, 철학자를 21세기에 계승하는 일본 철학자가 있습니까?

김기봉

11. 헤로도토스는 한때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몰락하고 대신 약소국이 부상하는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이유를 히브리스(hubris)와 네메시스(nemesis)라는 도덕적 우주 질서와 연관해서 서술했지만, 선생님처럼 만물, 만생, 만인을 포괄하는 달관의 언어인 대등생극론으로 정식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전쟁도 장기적으로는 강대국의 쇠락을 초래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전 세계가 대등생극론을 근대 이후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으로 깨닫는 날이 오길 고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께서는 대등생극론의 종주국 한국이 장차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고, 한류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징조라 보시는지요?
12. 한류의 원동력이 신명풀이라고 쓰셨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대등 생극으로 문명의 ‘빔’을 복제하는 한국인 문화 문법이 비빔밥으로 표상되는 한류의 문명 형태를 생성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말은 문화이고 글은 문명인데, 오늘날에는 매체의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고, 그런 디지털 문명 조건에서 ‘빔’을 복제하는 한국인 문화 문법이 “한국문화의 문명화” 단계로 진화하는 돌연변이 한류를 발생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